

KIMA+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July. 2015 | Vol. 05

+ Special

바다의 매력에 퐁당
WE'RE MARINE HOLICS
바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 World

KIMA가 본 세계의 보트쇼

+ Culture

국립해양박물관
제 20회 바다의 날 특별전 개최

KIMA+ Plus

July. 2015 | Vol. 05

KIMA 2015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쇼 주관  BEXCO 부산  MBC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D  국립해양박물관  한국관광공사  BPAV  부산항만공사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BC

특별후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타자동차(주)  GSB (주)골든블루

www.kimaweek.org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2015년 9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금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주소 :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3-10 (두실역 2번출구)
- 문의 : 1688-2369(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주)

대표번호: 1688 - 2369(Benz)
해운대 전시장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울산 전시장 울산 남구 삼산로 83(남동)
금정 전시장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3-10 (8월 오픈 예정)
www.mbstar.co.kr

*긴급출동서비스 080-001-1886
해운대 서비스센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 남구 삼산동 214-2
금정 서비스센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3-10 (8월 오픈 예정)

KIMA+ plus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Vol. 05 | July, 2015



발행처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조직위원회
 발행인 문철호
 편집인 여한웅
 기획·편집 안효영
 디자인·제작 하늘기획 051.611.3970
 발행일 2015. 07. 01
 add.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tel. 051.760.1130
 web. www.kimaweek.org

KIMA+ plus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홍보용 매거진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IMA+ plus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필름가 50% 이상 함유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인쇄, 제작하였습니다.

04/ KIMA WEEK 2015
파도,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다

06/ KIMA WEEK 2015
MAIN IMAGE PROGRAM

08/ KIMA Special 01
바다의 매력에 풍덩
WE'RE MARINE HOLICS

파도를 사랑한 그녀
송정서평학교 서미희 대표

짜디짠 바다 짜릿한 그 맛
창원바다핀수영동호회

18/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20/ KIMA+ World
KIMA가 본 세계의 보트쇼
2015 마이애미국제보트쇼
보트쇼는 도시의 동력이었다
2015 일본국제보트쇼
일본보트쇼 다시 기지개를 펴다
2015 상해국제보트쇼
아시아 최대 보트쇼 그 현장에 가다

30/ 2015 부산국제보트쇼
두 번째 닷을 올리다

32/ KIMA Special 02
바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MADEC 인재양성사업단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CK-1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육성사업단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42/ KIMA+ Issue
2015년 KIMA WEEK 대학생 명예 기자단
젊은 시선으로 KIMA WEEK를 바라보다

44/ KIMA+ Culture
국립해양박물관 제20회 바다의 날 특별전 개최



46/ KIMA+ Industry
라운하제 | 디텍 | DK마린 | 코리아터빈(주)

50/ KIMA+ Brief
주요단신



파도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는 또 다른 파도를 밀어 보내고
크고 작은 파도 사이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부서지는 파도, 하이얀 포말 사이로
즐겁게 웃고, 짜릿하게 행복한 ...
바다를 닮은 삶들이 환한 얼굴을 내민다

해양레저라는 바람이 일으키는 새로운 파도 ...
우리는 이 파도를 KIMA WAVE키마웨이브라 부른다

더 큰 뜻을 펼쳐라

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2015. 9.17(목) ▶ 23(수)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대, BEXCO

KIMA 2015 WEEK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GRAND OPENING 9.17(목) 14:00 BEXCO 3B홀	제2회 부산국제보트쇼 9.17(목) - 20(일) BEXCO 제1전시장 -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양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제4회 광안리 달빛수영페스티벌 9.19(토) 18:00 - 22:00 광안리 해수욕장 제3회 어린이요트페스티벌 9.19(토) 10:00 BEXCO 3B홀 제5회 코리아 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9.9(수) - 13(일) 수영강 APEC 나루공원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9.17(목) 14:00 광안리 해수욕장 - 용호만 다이아몬드베이 영화영상 지원 프로젝트 "바다야 놀자" 시즌3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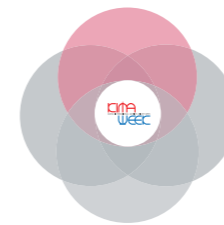
주최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 한국해양재단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쇼 주관 | BEXCO 부산MBC
 후원 |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관광공사 MDC BPAV 부산정보통신 부산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스타자중재(주) (주)광동분류

모두가 함께하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가
올해로 3회를 맞습니다.
KIMA WEEK의 도시 부산도 어느새
글로벌 해양레저도시로서 면모를
뽐내며 해마다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KIMA WEEK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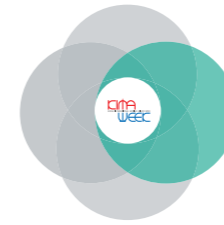
올해의 메인 이미지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해양레저의 도시 부산을
이미지화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이 명실
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나아가는
항해에 KIMA WEEK가
큰 뜻을 펼쳐 순풍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KIMA WEEK 2015 Grand Opening 2015. 9. 17(목) 14:00 ~ 14:50 BEXCO 1층 3B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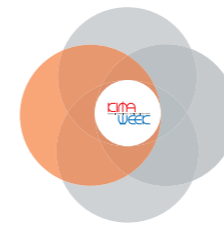
CULTURE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2015년 연중 | 부산시 해수욕장 일대
TV 다큐멘터리 | 2014. 9. ~ 2015. 9. | 중소기업연구원, 부산MBC
해양레저장비 지원사업 | 2015. 4. ~ 9. | 부산영상위원회
수상레저 안전캠페인 | 2015년 연중 | 부산MBC Ra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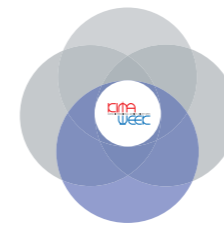
INDUSTRY

국제컨퍼런스 | 2015. 9. 17(목) 15:40 ~ 17:40 | BEXCO 1층 3B홀
KIMA Award | 2015. 9. 17(목) | BEXCO 1층 3B홀
제 2회 부산국제보트쇼 | 2015. 9. 17(목) ~ 20(일) | BEXCO 제1전시장 및 수영만요트경기장



TOURISM

시트레이드 크루즈 아시아 2015 | 2015. 6. 10(수) ~ 13(토) | BEXCO 및 부산항국제여객 터미널
KIMA PASS APP | 2015년 7월
KIMA WEEK 팸투어 | 연중
KIMA WEEK 그랜드세일 | KIMA WEEK 기간중(예정)



MARINE

제 4회 광안리 달빛 수영페스티벌 | 2015. 9. 19(토) 18:00 ~ 22:00 | 광안리 해수욕장
제 3회 어린이 요트페스티벌 | 2015. 9. 19(토) ~ 20(일) | 해운대 해수욕장 전면해상
제 5회 코리아 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 2015. 9. 9(수) ~ 13(일) | 수영강 APEC 나루공원
해양레저 무료체험 | 2015. 9. 17(목) ~ 23(수) |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용호만 다이아몬드베이

바다의 매력에 퐁당

WE'RE MARINE HOLICS

무언가의 매력에 퐁 빠진 사람들

심취한 나머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부를 때 'OO 홀릭'이라는 어미를 붙이곤 한다. 해양레저의 도시 부산에는 다양한 이유로 '마린홀릭'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물고기 물을 만난 듯, 그 누구보다 바다의 계절 여름을 만끽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자.

파도를 사랑한 그녀

송정서핑학교 서미희 대표



서핑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바다, 파도, 바람이 풀어주는 때를 기다리며 매일을 산다. 현재 부산에는 5,300여 명의 서퍼들이 있다. 그 중에는 한여름에만 잠깐 즐기는 단순 참여형과 사시사철 파도를 분석하며 즐기는 마니아들이 있는데 모두가 서핑의 매력을 앞 다퉈 이야기하는 '서핑홀릭'들이다.

우리나라 1호 서핑학교를 세운 서퍼, 송정서핑학교 서미희 대표.

서핑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국 사람에게 서핑이 먼 나라 이야기로만 여겨지던 20년 전, 해외에서 서핑보드를 들여와 파도와 사랑 놀음을 해온 사람이다.

그 행복한 경험을 혼자하기 아까워 우리나라 최초 서핑학교까지 세운 서핑홀릭, 송정서핑학교 서미희 대표를 만났다.

서미희 대표는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서핑을 하며 변화하는 날씨를 읽어내는 것이 일상이 된 탓이다.

“미국 인공위성 날씨에는 서퍼들을 위한 기상정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 정확하게 맞긴 어렵죠. 그래서 60%는 위성날씨, 30%는 경험으로, 10%는 매시간 상황에 맞춰 기상을 읽어내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송정서핑학교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핑스쿨이다. 그러니 그녀야말로 서핑홀릭의 1호격이라 할 수 있다. 서대표 뿐 아니라 19살 딸, 16살 아들도 발리로 서핑 유학을 갈 정도로 가족들의 서핑사랑은 대단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하는 것은 곧 죽어도 싫었어요. 내가 처음 시도하고 최고가 될 것이 뭔가를 늘 고민하던 찰나, 먼저 만난 건 윈드서핑이었어요. 당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바람을 타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서 대표는 그렇게 해운대, 송정에서 15년 동안 윈드서퍼로 통했다. 그런 그녀를 단숨에 서핑홀릭으로 돌아서게 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 송정은 파도가 센 편이라 윈드서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윈드서핑은 바람을 타는 레포츠이기에 파도가 잔잔해야 좋다. 반대로 서핑은 파도를 타야하니 바람이 찾아야 한다.

“윈드서핑에 방해가 되는 거친 파도가 너무 밍뎀 찰나였어요. 외국인 서퍼 한 명이 그 미운 파도를 타고 유유히 서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순간 저거다 했습니다. 내 평생의 운명을 만난 순간이었지요.”

그녀는 이후 외국에서 직접 서프보드를 구입해 3년간 독학을 하며 서핑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도와 잘 놀게 됐을 즈음, 불현듯 누군가와 함께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한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송정서핑학교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핑에 대한 믿음으로 인재를 발굴해 가르쳤고, 그 끈질긴 인내는 ‘부산서핑문화의 중심’이라는 보석 같은 수식으로 되돌아왔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협회를 키우고, 국제심판자격증을 따며 인정받게 되면서 서핑홀릭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퍼들이 말하는 부산 바다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수온과 그리 높지는

않지만, 서핑을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파도,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바다가 가까이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란다.

사람들은 젊음을 갈망하고 젊음을 그리워한다.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보다는 열정적이었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한다. 수많은 모습들 중 젊음을 상징하는 함축적 이미지가 무엇일까. 검게 그을린 근육질의 몸매, 맨몸으로 파란바다를 수영하는 사람들, 음악에 몸을 맡긴 클러버, 모두가 젊음이라는 특권을 만끽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에서도 작은 보드 위에서 몸을 맡긴 채 파도에 도전하고 때로는 파도에 순종하는 서퍼들이야말로 젊음의 대명사가 아닐까.

“서핑은 사계절 레포츠입니다. 일본 쇼난에서는 1월에도 수백 명의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곤 하지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 여름 레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미희 대표는 서핑 대중화를 위해서는 서핑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핑이 대중화되면, 피치 못할 사고에 대비한 해양구조대에 대한 준비와 지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19구조대와 일반인 구조단체가 결합된 ‘바다지킴이’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을 위한 ‘바다학교’가 세워져 해양레포츠가 부산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기를 바라봅니다.”

“제게 서핑은 삶 자체입니다. 서핑을 만나기 위해 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최고가 되기 위한 길을 끊임없이 기다려왔고, 서핑을 만난 순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로지 서핑,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슴에 품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서핑홀릭 그녀가 사랑한 바다, 울어름엔 누구라도 첨방 파도를 타 볼 일이다. KIMA+



본 기사는 동서대학교 DIDIC가 동남권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부산, 울산, 경남 해양레저즐거기>의 내용 일부를 원 저자의 허락 아래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동서대 DIDIC 홈페이지 www.marineleisure.kr 에서 더 풍성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짜디짠 바다 짜릿한 그 맛

창원바다핀수영동호회



Feature 02

오전 5시 30분 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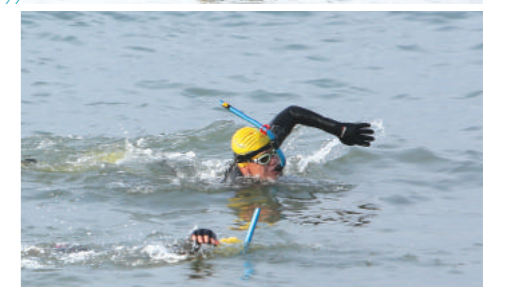
6월 중순의 아침 바다는 어떤 풍경일까?

다소 이른 시간의 취재였지만, 간만에 동틀 무렵 고요한 바다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로 위안을 삼았었는데, 이게 웬걸! 파도소리, 갈매기 소리보다 먼저 들리는 것은 '헛돌셋넷... 돌돌셋넷...'

검은 고무수트를 입은, 아예 비키니 차림인 남녀들이 몸 풀기에 한창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한두 팀이 아니라는 사실, 저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의 수영모로 아이덴티티를 구별하는 바다수영마니아들이 휴일 새벽 해운대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해마다 KIMA WEEK '광안리 달빛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열성파들이란다. 창원과 마산 지역에 모인 바다수영의 진정한 마니아라 자부하는 '창원 바다핀수영동호회(이하 '창원바다핀'으로 표기)', 이들의 연습현장을 찾았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익숙한 듯 PT체조로 몸을 풀고 있었다. 날마다 수영으로 다져진 몸이지만, 준비운동은 곧 생명이란다. 몸 풀기를 마친 회원들은 서로 장비착용을 도와주며 꼼꼼하게 입수를 준비한다. 바다수영은 준비물



부터 해수욕과는 달랐다.
 먼저, 수영용 수트가 기본이다. 해녀들의 물옷 같은 이 수트는 일단 입는 순간, 스타일이 살지만, 멋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 수트 자체가 부력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뜨게 하고, 차가운 바닷물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이유 있는 스타일'이다. 수트 속에는 수영복을 입고, 수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갑과 버선, 수모와 수경을 착용한다.
 그리고 핀 수영의 생명인 1m 남짓한 핀(fin:물갈퀴)을 발에 신고, 스노클(snorkle)을 입에 물면 입수준비가 끝난다.

리더인 김태용 회장(창원바다핀수영동호회)이 회원들에게 오늘의 코스 두 개를 설명했다.
 바다수영 초보자들은 1Km 남짓, 기존 회원들은 2.5Km정도를 돌아오는 코스다. 개인차가 있지만,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고 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대회 기준인 3Km 이상 돌아오기도 한다.
 "아무리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오래 하셔도 바다 수영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파도가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좀 높아 보이네요. 그래도 선임들이 옆에서 가드해가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파이팅으로 의기투합한 회원들이 하나 둘 파도를 맞서 바다로 뛰어 들었다.
 6월이지만 5도 안팎의 차가운 해수온도와 거침없이 다가오는 파도에 여기저기서 기분 좋은 비명(?)이 잠시 들리더니 어느새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큰 파도를 한번 쯤 넘고부터는 유연한 스트로크(stroke)로 속도를 내는 회원들의 모습이 꽤나 멋져 보인다.



반환점은 수영금지를 알리는 부표 바로 직전에 위치한 작은 등대다. 10여 분이 지나 반환점에 가까워질 무렵에는 모두 점으로 보였다. 그나마 머리에 쓴 동호회마다의 수모 색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혹시 쥐가 나면 어쩌지? 바다 속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 함께 입수하지 않은 이로서는 이런저런 물음표만 날리고 섰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고 창원바다핀 회원들이 하나 둘 수영을 완주하고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만나고 싶었던 회원은 역시, 오늘 바다수영에 처음 도전한 신입회원이다.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 이번에 도전한 건데, 정말 기분 좋아요. 처음에는 파도도 높은 것 같아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역시 수영장에서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이 있네요."
 "약간 무섭긴 했어요. 어둠 속에 키 큰 해조류가 어른거려도 무섭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다소 진지했던 입수 때와는 달리, 정해진 코스를 완주한 후 물밖으로 나오는 회원들의 환한 표정에서는 바다수영의 쾌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짜디짠 수트를 벗고 수영복 차림으로 다시 바다로 첨벙거리는 모습은 오늘도 바다와, 스스로와 겨루어

이긴 자만이 누리는 여유로움이 묻어있었다고 해야 하나.
 수영장이 아닌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오픈워터 스위밍의 매력, 창원바다핀 회원들의 말을 빌어보면 이렇다.
 "일단 건강해집니다. 육체적인 활력도 좋아지지만, 매주 자연을 만나니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은 목표를 두고 자기극복 차원에서의 도전이라면, 바다수영은 바다 그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단 바다를 보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파도는 여전히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겪어내다 보면 두렵던 바다는 어느새 즐거운 장소가 되지요."

세상에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다. 변화무쌍한 파도너머의 세상으로 첨벙 뛰어드는 도전의 짜릿함이 또 다시 바다 앞에 서게 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우는 즐거움 또한 바다수영만의 매력이란다.
 "바다는 어김없이 짜고 차갑습니다. 그래도 한바퀴 완영한 후에 누리는 그 짜릿함을 포기할 수 없지요. 부산에 사는 게 진짜 행운입니다." **CIMA+**

BUSAN MAYOR'S CUP INTERNATIONAL SURFING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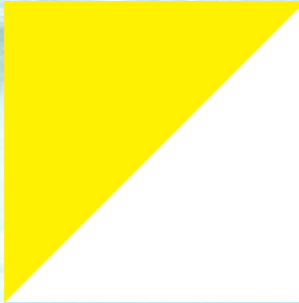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파도 위에 펼쳐진 서퍼들의 축제

부산이 자랑하는 서핑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6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6월 27일부터 3일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국제서핑대회로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미국, 중국, 일본 등 6개국 10개 팀 4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내외 우수 서핑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세계적 해양레포츠의 명소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OAT SHOW OF THE WORLD

KIMA가 본 세계의 보트쇼

REPORTAGE 01

2015 마이애미국제보트쇼 | 2.12 ~ 16 | 미국, 마이애미컨벤션센터

REPORTAGE 02

2015 일본국제보트쇼 | 3.5 ~ 8 | 일본, 파시피코 요코하마, 요코하마 베이사이드마리나

REPORTAGE 03

2015 상해국제보트쇼 | 4.8 ~ 12 | 중국, 상해 세계전시관



MIAMI

보트쇼는
도시의 동력이었다
(주)리컨벤션 이봉순 대표

마이애미 보트쇼는 도시의 동력이었다. 사계절 마주할 수 있는 자연환경, 로맨틱한 도시 풍경, 각국에서 온 풍요로운 사람들로 더욱 이국적 풍미를 주는 마이애미, 올해 2월, 뒤셀도르프, 런던, 파리와 함께 세계 4대 보트쇼로 이름을 더하고 있는 마이애미 국제 보트쇼에 업무차 다녀왔다.



2015 마이애미 국제보트쇼는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마이애미 컨벤션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공식 셔틀버스로 이동 가능한 다양한 마리나에서 최신의 모터보트, 해양 전자장비 및 마리나 용품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전 세계 80여 개국 10만명이 관람하는 메가 이벤트(mega-event)이다. 마이애미 보트쇼는 밀도 높은 산업전시로서 보트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허브였으며, 마이애미 전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도시 전체가 축제로 승화되어 지역의 부가 가치를 올리는 관광자원이었다. 보트쇼 기간에 이 도시를 찾는 전시업체, 바이어, 참가객 및 시민들까지 한 데 어우러져 도시 구석구석을 가득 메우며 거대한 관광자원으로 환원되는 모습들을 부럽도록 확인했다. 올해로 74회를 맞은 역사 깊은 마이애미 보트쇼에서 처음 받은 인상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전시회라 해서 전시장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으며, 컨퍼런스라고 해서 회의장의 책상과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해양 레저관련 전시들은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보트쇼 콘텐트로 가득 메웠고, 학문적인 내용에서부터 실생활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할 수 있는 풍성한 컨퍼런스로 마음까지 채워주었다. 보트쇼에 참가한 참가객들은 주최측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행사장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마이애미 시 전역은 보트쇼를 보기 위해 마이애미를 방문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 위해 수십 개의 부대행사를 마련해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가능케 했다.

무엇보다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부분은 탄탄한 시장성이었다. 70년이 넘게 이어온 오랜 시간의 노하우만으로도 세계 최대의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마이애미보트쇼는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전 시로서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보트쇼를 만드는 조직 자체가 시장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는 실질적인 주인공이기에 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보트쇼 관계자, 협회, 회사, 유관 기관은 모두 보트쇼에서의 판매자이자 구매자였고 달려왔다. 국민들과 참가객 또한 열린 시장에서의 구매자였고 달려왔으니 마켓의 활성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성공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2015년 마이애미 국제보트쇼였지만, 이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2016년부터는 75년간 행사를 개최했던 마이애미 컨벤션센터라는 동지를 떠나 최신 시설을 갖춘 마이애미 마린 스타디움 파크(Miami Marine Stadium Park) 및 마리나 전역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시는 1,600만(한화 약 1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며 요트계류장 증축, 최신 시설 완비 등 해양 레저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탁 트인 마이애미의 요트계류장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문득 마이애미의 모습이 부산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부산은 마리나 인프라, 국제해양도시, 관광컨벤션 도시로서의 기반뿐



MIAMI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12 ~ 16

마이애키컨벤션센터
80여 개국 10만여 명 참관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와, 해양 레저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면모를 이미 갖추고 있다. 매년 부산에서는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해양레저축제'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가 열리고 있다. 키마위크는 해양레저시설 이용 촉진, 마리나 개발 활성화,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한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대국민 저변확대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필요로 한 콘텐츠로 지역적 특색에 맞도록 개발한다면 부산도 아시아의 대표적 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제행사들도 흥망성쇠가 있다. 후발주자로서 따라잡는 것을 뛰어넘어 추월할 수 있길 꿈꿔본다. **KIMA+**

JAPAN

일본보트쇼 다시 기지개를 펴다

(주)BEXCO 전시2팀 한덕우 과장

부산보트쇼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던 3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일본국제보트쇼를 찾았다. 출장의 목적은 일본국제보트쇼를 참관하고 주최자를 면담하는 벤치마킹 및 자료조사 작업과 일본국제보트쇼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5부산국제보트쇼에 대한 홍보마케팅이었다.

올해로 신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일본 유일의 국제보트쇼로서 올해는 육상전시와 해상 전시를 통틀어 180여 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호텔에 짐도 풀기 전에 육상전시가 열리는 파시 피코 요코하마로 향했다. 신형 제트스키와 파워 보트, 그리고 엔진 등 보트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전시돼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은 2~3억 원을 호가하는 가족용 호화 보트로, 이들은 자동차 엔진 기술을 토대로 보트 제조에 뛰어들면서 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보트쇼는 비교적 내수지향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레저용 파워보트 전시부스였다. 특히, 피싱보트의 경우, 일본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일본 업체가 소화하고 있으며, 동급 수입보트의 경우 세금 부가로 인한 고가의 판매가격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태였다. 단, 대형 레저보트의 경우, 일본업체 생산제품이 많지 않아 일본 내 판매 대행사를 통한 수입판매가 대부분이며 일본경제회복에 따라 지속적인 판매 증가 및 전시회 참가확대 추세에 있다고 했다.

올해 보트쇼의 가장 큰 특징은 해상전시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육상 전시를 동시에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육상전시장인 파시피코 요코하마에서 해상전시장인 요코하마 베이사이드마리나로의 연결은 셔틀버스와 셔틀보트로 잇고 있었다. 셔틀보트의 경우, 요코하마 크루즈와 같은 기존 유람선을 활용하되 보트쇼 기간 중에는 전용 셔틀보트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다. 해상전시장의 경우 마리나 이용은 특별협찬 형태로 별도 시설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기존 정박선박의 이동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보조해준다고 했다.

일본보트쇼의 해상전시 확대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시사한다. 최근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유인하기 위해 전시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보트쇼 주최기관인 (사)일본마린사업협회 측의 기대도 비슷했다. 일본 정부 역



시 이런 흐름에 맞춰 도심과 가까운 마리나에서 보트도 즐기고, 식사와 온천 등을 할 수 있는 '바다역'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보트쇼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부대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보트쇼의 부대행사는 부산보트쇼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올해 일본보트쇼의 부대행사는 중고보트페어, 보트면허 갱신·해지 강습회 등으로 해양레저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중고보트페어의 경우, 일본중고보트협회가 중고보트관 전체 부스비를 납부하고 개별 참가업체 모집 및 총괄 운영했다. 다양한 볼거리도 되지만, 전시된 상품의 30% 정도가 현장 거래된다는 점이 놀라웠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보트산업은 사실상 사양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양레저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일본보트쇼는 저변확대와 산업활성화의 중심에서 구체적인 역할 수행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수출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 및 초청 프로그램은 미비했지만, 내수지향형이라는 명확한 컨셉으로 해양레저 트렌드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전시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해양레저의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KIMA+



SHANGHAI

아시아 최대 보트쇼 그 현장에 가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박현진 차장

지난 4월 8일, 중국 내 보트쇼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중국상해국제보트쇼(이하 상해보트쇼)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은 아시아 최대 보트쇼로 성장한 상해보트쇼 참관을 통한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체 지원 및 2015부산국제보트쇼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그 목적이었다.

상해보트쇼는 1996년 첫 개막 이후 20회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내 보트쇼 중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이미 매출·규모 면에서 일본의 동경보트쇼를 추월했다. 그 거대한 위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상하이로 향했다.

상해보트쇼는 세계 유명 요트와 보트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자재·레저장비 전시 역시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아시아 대표 보트쇼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에만 국한된 국내 보트쇼와는 달리 각국의 유명 요·보트 브랜드가 신제품과 첨단 기술을 발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참가기업들의 홍보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호주·노르웨이·대만 등에서는 국가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는 등 국가 간 경쟁도 심화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외·현지 바이어의 관심과 참여로 참가기업과의 지속적인 실제 교류가 매년 이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상해보트쇼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올해 상해보트쇼는 기존의 요트와 보트 완성품 외에도 첨단 기자재 및 저가 현지제품, 아이디어 상품 전시가 돋보였으며 해양레저, 캠핑 등 레저 장비 전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전시는 1관에서 요트·보트 전시와 동일한 규모로 2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신식 엔진이나 항해통신장비 등의 주요 설비와 부속품, 인테리어 부품 등의 다양한 기자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 전반에 해외 브랜드 이외에도 중국 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중국의 레저선박 산업이 균형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 9개의 업체가 참가고 있었다. 특히 정부 지원 참가기업인 디텍과 코리아터빈(주)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의 특성을 결합한 제트보트, 태양열을 추진에너지로 하는 친환경 솔라보트를 각각 모형과 동영상 등으로 전시하여 해외 및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2~3회 이상 해외보트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7개 업체가 상해 보트쇼에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와 경기국제보트쇼 조직위에서는 홍보부스를 따로 두어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도 활발히 해외 보트쇼에 참가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이미 참가 중인 9개 기업에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부스를 열심히 옮겨 다녔다. 정부 지원 참가기업들은 기존의 지원금 2천만 원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전시효과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외 참가 기업들은 제품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가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활발히 활동하는 다른 국가관들의 모습을 보며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었다.

우리 상해보트쇼 참가단 역시 국제해양레저네트워크와 2015부산국제보트쇼의 사전홍보를 위하여 보트쇼 참가자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상해보트쇼 관계자 미팅을 통해 부산국제보트쇼와의 협력관계와 국내 참가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2015 상해보트쇼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었다. 해외기업과 바이어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요트·보트 제조사와 기자재 업체가 동반 성장하고 있는 중국 레저선박산업계의 모습은 단순 요트·보트 전시에 그치고 있는 국내 보트쇼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며, 이 강점이 상해보트쇼를 아시아 최대 보트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보트쇼를 통한 기업과 거래처간의 활발한 교류가 절실하다 여겨지며 기자재, 해양레저장비 전시 역시 활성화시킴으로 일반인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날이 성장하고 있음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번 상해보트쇼는 중국 레저선박산업계의 놀라운 발전상을 경험하고 우리 레저선박산업계의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욱 멋있게 발전해 갈 부산국제보트쇼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분 좋게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KIMA+**



2015 부산국제보트쇼 두 번째 댛을 올리다

B U S A N I N T E R N A T I O N A L B O A T S H O W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보트쇼 '2015 부산국제보트쇼'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메카 부산 BEXCO 제1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015부산국제보트쇼'는 지난해 1만 2천여 명이 관람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에서 해양레저산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해 그 행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TRA, BEXCO, 부산MBC가 공동 주관하는 '2015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외 요트·보트 제조업체, 엔진·부품 및 악세서리, 마리나시설 및 서비스, 워터스포츠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140여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의 17600㎡보다 40% 확대된 25000㎡의 실내전시장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최대의 보트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산업, 글로벌 해양관광도시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국내외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형 부대행사들도 마련되어 있다.

부산국제보트쇼 사무국은 '2015 부산국제보트쇼'의 가장 강점인 참가업체의 해외 수출판로 개척과 지원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과 수출상담회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주관사인 KOTRA는 100여 개의 해외 무역관과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및 EU 지역의 관련 협회를 통해 유력 바이어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참가업체 개별 맞춤 바이어 지원으로 실질적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은 국내 최초 육상·해상 전시회로 동시 개최되었으며 120개사 822개 부스 규모로 495건, 1259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1:1 비즈니스 상담회, 환영만찬, 부산데이투어 등 참가자와 바이어 간의 최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부산광역시 박준우 해양산업과장은 "국민소득의 신장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시장 확장에 초점을 두고 올해의 행사를 준비했다."며 "2015 대한민국국제해양레저워크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을 해양레포츠 종합축제로 삼아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KIMA+**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부산국제보트쇼

2015. 9. 17 Thu ▶ 9. 20 Sun
BEXCO 제1전시장 |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최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tra BEXCO 부산 MBC



바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 대학교육, 창의적 융합으로 해양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산업이 국가경쟁력이 될 만한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은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해양레저서비스센터 구축 및 해양레저문화축제 개최, 마리나 개발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수요 증대 추세에 따른 법적 규제완화 및 관련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해양레저산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30%가 동남권역으로 계획되어 있기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해양레저산업 관련 분야에 필요한 실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전문가 공급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대학들이 관련 학문분야 교육체계를 실무중심의 융합적 교육체제로 혁신하기 위한 노력에 팔을 걷고 나섰다.

KIMA Plus에서는 해양레저 분야 인재양성사업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학 현장을 찾아 현황과 비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와 MADEC인재양성사업단과 영산대학교 'CK-1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육성사업단'의 사례를 소개한다.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MADEC 인재양성사업단

Marine System Convergence Design



Q 사업단 소개 및 비전

과거 해양산업이 공학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현재의 해양산업은 디자인, 공학, 스포츠 등이 융합된 '융합형 해양산업'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특히 디자인은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호주와 같은 해양선진국에서는 디자인 기여도를 점진적으로 늘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해양산업에서 디자인 기여도가 15~2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에 그치고 있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이 다시금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선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생태, 해양건축 등과 같은 해양 시스템과 디자인과의 Co-Work을 통한 다각화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마린디자인융합협동과정은 해양을 기반으로 산업디자인, 조선해양시스템공학, 체육학, 소방공학, 건축학, 신소재시스템공학, 환경공학, 생태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10개 전공,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18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문화, 해양공학, 해양건축 등 관련 분야의 다각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 교육한다. 본 협동과정은 해양 디자인분야(디자인석사, 디자인박사), 해양공학분야(공학석사, 공학박사), 해양문화분야(체육학석사, 이학박사)로 전공분야가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디자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특성화 교육 진행을 통해 특화된 고급인재를 양성, 해양산업의 핵심 브레인으로서의 역할과 해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정형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교수
MADEC 인재양성사업단 단장

Q 주요 연구/교육 내용

연구부문은 레저장비디자인, 안전/산업장비디자인, 공간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개 분야다. 현재 국내 해양관련 산업의 경우 소규모 운영형태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분야와의 협력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함으로써 해양관련 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한다. 교육부문으로는 인터하우스 특화된 재양성 융합교육을 통해 연계 전공간의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 실무현장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무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실천적 방식으로 채택한다.

구분	세부 분야
레저장비 디자인	보트, 요트, 제트보트,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카약, 바나나 보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낚시, 물놀이용품, 약세사리, 의류 등 해양레저와 관련한 제품디자인
안전/산업장비디자인	해상 인명구조 장비, 선박 또는 해양시설물의 안전장치 및 안전 구조물, 수상레저용 안전 장비, 해변 물놀이 안전장비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에 관련한 디자인 수산, 해양물류/운송 등 해양산업과 관련한 장비디자인
공간디자인	마리나, 부두, 등대, 수변공원, 해수욕장, 수변 건축물, 해양박물관, 인공섬, 플로팅아일랜드, 물류창고 등 해양과 관련한 공간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디어콘텐츠, 패키지, 홍보물 등 해양 관련 커뮤니케이션디자인





MADEC 인재양성사업단

융복합형 교육

- 다학제간의 교육네트워크 구축
- 전공간의 연구거버넌스 체계확립
- 다학제적 팀단위 프로젝트 수행

특성화 인력양성 프로그램

- InterHouse 융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Co-work 융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 산학공동 멘토링 프로그램

산학협력 기술혁신

- 해양 융복합 산학협동 프로젝트
- 산학공동연구개발
- 인턴십 형태의 현장교육
- 기업맞춤형 융복합형 인재육성

〈학과 졸업 후 진로 방향〉

Q 사업단 학과 졸업 후 진로

해양융합디자인협동과정은 10개의 전문분야 융합교육을 통해 특화된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국내외 글로벌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의 취업을 통해 해양산업의 핵심 브레인으로서의 역할과 해양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단 학과 졸업후 진로

석사학위취득 | 해양관련 분야의 국내외 글로벌 기업, 연구소
박사학위취득 | 섬유패션관련 분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국내외 우수대학 박사후연구원 및 교수, 국·공립 연구소 취업

외국인학생 | 자국을 대표하는 연구소, 대학 취업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교육 목표



선박, 해양 구조, 모든 해양공학 관련 학문기술교육연구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간의 융합적 접근 및 시너지 창출



해양문화에 대한 학문성 정립과 교육연구

Q 사업단의 우수성

부경대학교는 1996년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고 통합이후 해양수산 특화대학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설된 마린산업디자인대학원 설립 등 해양 수산관련 분야와의 다양한 융합을 시도해 왔다.

이에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은 '21세기의 창의적 디자인 리더양성'과 '새로운 디자인가치, 창조적 국제적인 중심교육'을 목표로 본교의 해양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능동적 이해와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하는 전인적인 창의력과 사고력, 전문적인 수행력을 함양하고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디자인이 실현되고 있는 여러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IMA+**

MADEC 인재양성사업단

tel. 051-629-7831 madec2014@hanmail.net http://myweb.pknu.ac.kr/madec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CK-1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육성사업단



Q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의 지향점과 목표

영산대에서는 이미 15년 전 미래 레저산업 수요를 분석하고 레저관광 전문인력양성 교육체계를 선도적으로 경험한바 있으며, 최근까지 해양레저 및 레저관광 산업 분야를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판단하고 준비하며 기회를 기다려왔다.

이에 따라,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의 특성화 주제도 '바다가 미래대 블루오션! 해양레저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정책을 고려하여 해양레저SOC산업 및 해양레저장비산업, 해양레저관광서비스산업 등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레저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 영산대는 해양레저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학문의 교육체계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15년 3월 1일부터 '해양레저관광학과'를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지금까지 축적된 '관광서비스', '레저', '스포츠', '경영', '안전' 등에 대한 교육적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해양레저 및 레저관광 산업, 레저스포츠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 전문가를 양성하여 글로벌 산업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가 오랫동안 축적한 관련 분야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화와 융합을 통해 창의적 해양레저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서 레저스포츠 분야로는 동남권역에서 유일하게 영산대학교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단'이 선정된 바 있다. 영산대 김철우 사업단장(해양레저관광학과장)을 만나 특성화 사업과 학과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철우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CK-1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육성사업단 단장

Q 해양레저산업의 다양한 분야 중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안전'이다. 그리고 최근 해양수산부는 1.13(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요트 대여·계류업 창업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해외선사 유치,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등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우리사업단에서는 레저안전관리 실무와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겸비한 해양레저산업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해양레저산업 분류 중 해양레저관광 서비스기업에서 필요한 해양레저 투어전문가와 시설관리운영전문가 양성, 해양레저 SOC산업(마리나, 크루즈 등) 분야에서 필요한 해양레저 안전전문가와 시설관리운영전문가 양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본 해양레저관광학과 지정되는 작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에 교내에 해양레저안전교육센터를 구축하여 해양레저안전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레저안전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수상(해수면, 내수면)레저안전 교육을 통해 해양레저 활동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과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전공실무 능력을 재능기부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협력기업인 (주)삼주 다이아몬드 베이와 공동으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해양레저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차년도에 계획 중인 '소외계층 등을 위한 해양레저안전프로그램'과 같은 재능기부 지역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Q 영산대 '해양스포츠 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단'만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은?

본 사업단에서는 'HMC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HMC 프로그램은 인성역량 강화프로그램(Humanity)과 실무전문역량 강화프로그램(Major), 융합형 창의역량 강화프로그램(Convergence)을 포함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학년별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Q 학년별 목표와 운영체계 등 구체적인 교육과정

해양레저관광학과 학생들은 해양레저와 레저관광, 레저스포츠 전공분야 중 2개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학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1학년에는 인성과 전공기초 역량강화프로그램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 목표설정을 위한 동기유발프로그램 참여와 의지력 향상,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2학년과 3학년은 1·2학기 및 방학을 이용하여 전공역량 강화교육과 산업체현장 몰입식 교육, 전공자격증 취득, 실무전문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4학년은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과 전문분야 시설관리운영과 서비스마인드를 장착한 창의적 인재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련 학문간 융합교육체계 마련을 통해 전공실무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품질인증제를 통해, 성과지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Q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목할 만한 교육 인프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에 따라 연간 3억 원씩 5년간 최대 15억원의 예산은 재학생들의 장학금과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장학프로그램으로 계획한 CM-마일리지 시스템이 있다. 온라인 관리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학업 및 특성화 프로그램 실적 성취도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학금 지급(CM-창의인재 장학금)이 가능해지며, 재학생들의 교육품질 인증평가제도도 구축될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특성화 장학금(CM우수인재 장학금, 해양관광 장학금, 레포츠인재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이 지급되며, 전공실무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CM-Creative Marine(해양레저관광학과 의 슬로건)

교육시설 부분으로는 '해양레저안전 시뮬레이션센터'의 단계별 구축을 통해 첨단 실습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시청각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해양레저산업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연구용역 개발을 통해 수상동력레저기구 안전시뮬레이션 기기를 개발 또는 구축을 통해 재학생들의 실무안전역량을 강화는 물론 대국민 해양레저 활동 안전관리체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수상동력레저기구 운용의 다양한 안전교육 상황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안전한 운용·운항을 배울 수 있는 첨단 교육시스템은 전무하기에 영산대에서는 2013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수상동력레저기구 안전시뮬레이션 기기 개발을 시도해 왔다. 이밖에도 해외협력기업들과의 산학교류협정을 통해 해외기업 전공실무 현장실습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취업경쟁력 강화

로 이어지는 인재육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Q 특성화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혹은 향후 활동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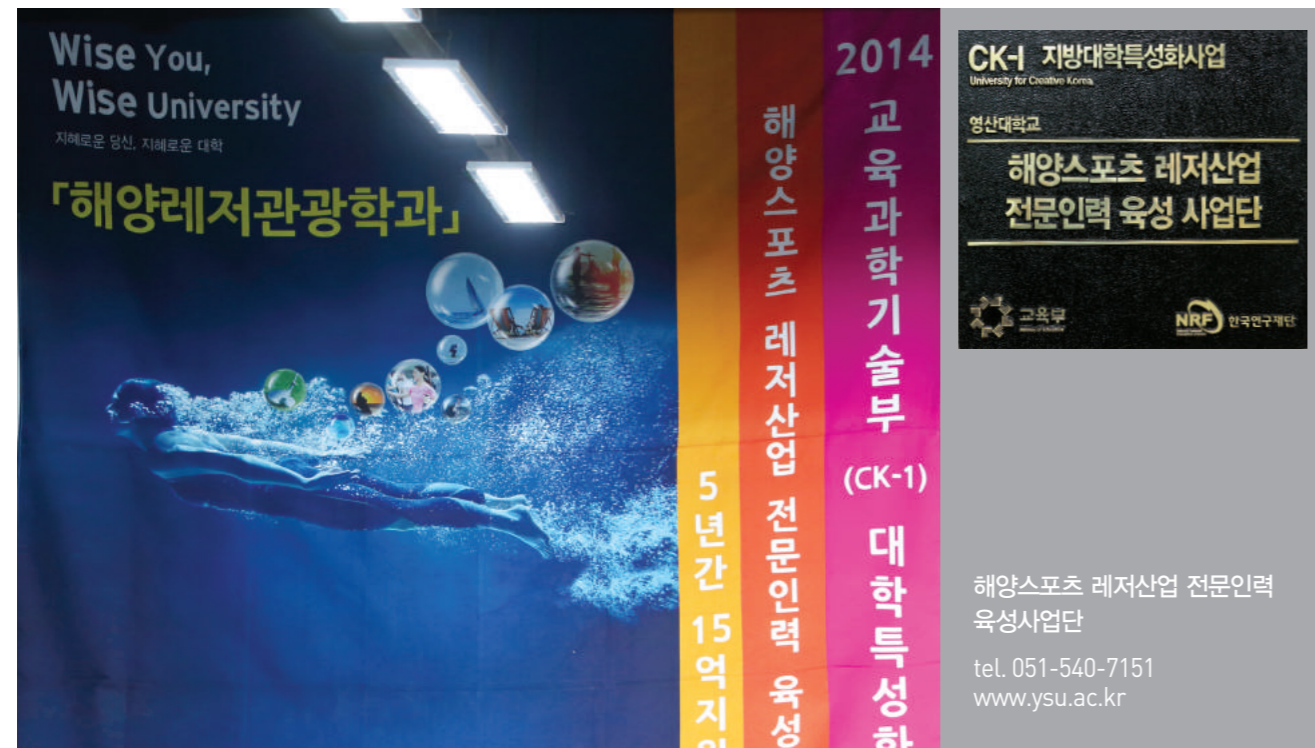
학생들은 학과의 HMC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공분야별 레저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국가안전처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 및 요트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인증하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응급처치 자격증, 잠수기능사 자격증, 레프팅가이드 자격증, 관광통역가이드 자격증 등 다양한 해양레저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자격증과 국내외 현장실습

을 통해, 마리나와 해양레저관광시설 경영관리 전문가, 크루즈 실무전문가, 해양레저안전관리 전문가, 해양안전 특수공무전문가, 레저스포츠관광·해양레저 개발기획전문가, 레저스포츠산업 및 전문투어 분야 창업, 레저스포츠전문 투어가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다가 미래다!
"Feel the Marine! Fill the Future!"
3면이 바다이며, 충분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마땅한 해양문화가 없었으며,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법적, 환경적 접근 또한

어려웠다.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는 변화하는 미래 해양레저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도전과 변화를 지속할 것이다. 지난해 해양스포츠레저산업분야에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선정을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미래의 해양레저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양성교육과 전문가재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특성화된 교육목표와 역량을 산·관·학·연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구축을 지속하겠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해양레저 및 해양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학생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해양레저관광 전문교육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수도 부산! 핵심 산업에서 활약할 인재들을 위해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KIMA+





2015년
KIMA WEEK
 대학생 명예 기자단
 젊은 시선으로 KIMA WEEK를 바라보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100명의 2015 KIMA WEEK 대학생 명예 기자단을 모집한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문화 영유층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해양레저의 저변 확대,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해양관련 인력 양성고 외국인 참여를 통한 KIMA WEEK의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화를 위해 2015 KIMA WEEK 대학생 명예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IMA 명예 기자단은 2-4명의 개인 또는 팀으로 구성된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커뮤니티 운영, 정기적인 카페 포스팅, SNS 채널 상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자단에 선발된 이들은 KIMA WEEK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참신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KIMA WEEK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활동에 주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정기간담회 참석 및 지정과제에 따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그 활동 결과를 UCC로 제작하게 된다. 우수 홍보팀에게는 시상 및 표창이 주어지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수료증 발급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KIMA WEEK 행사 활동지원 및 우선 초청,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KIMA WEEK 사무국 인턴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기한은 2015년 6월 15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이며, KIMA WEEK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komalnet@naver.com)으로 지원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www.kimaweek.org | tel 051-760-1130). KIMA+

국립해양박물관 제20회 바다의 날 특별전 개최



제1부 '바다에서 희망을 보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자원 개발과 과학탐사연구,
제2부 '해양을 즐기다.'는 여러 해양레저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요트에 관한 내용,
제3부 '바다와 부산'은 해양도시 부산의 변천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바다의 날 기념 특별전 개최로 해양수산의 현재와 미래 조명

국립해양박물관이 바다의 날 특별전을 열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관장 손재학)은 제2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5월 20일(수)부터 7월 26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바다가 힘이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 「바다가 힘이다.」는 국민들에게 해양수산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들과 더불어 부산이 해양 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1부 '바다에서 희망을 보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자원 개발과 과학탐사연구에 대해, 제2부 '해양을 즐기다.'는 여러 해양레저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요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제3부 '바다와 부산'은 해양도시 부산의 변천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립수산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시청 등 11개 기관에서 제공한 다채로운 전시물로 채워져 풍성하고 알찬 전시가 될 것이다.

부대행사로 한국인 최초 단독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강동석 씨를 초청한 청소년 대상 갤러리 토크가 6월 29일(금) 열렸고, 6월 30일(토)에는 '바다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가 진행되었다. 6월 중에는 매 주 토요일 아시아 최대 크기의 요트로 잘 알려진 '마이더스 720호'의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있었다. 또한 5월 27일(수)부터 31일(일)간에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크랩스터'의 전시와 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손재학 관장은 "지난 4월 20일 국립해양박물관이 특수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이후 처음 기획한 특별전으로,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IMA+



라운하제



www.raonhaje-ego.com	
대표	진양곤
설립	1979년(에이치엘비 설립연도)
주요제품	반잠수정 보트, 레저보트, 마리나리조트, 요트
Number	Tel. 052-240-3555 http://www.raonhaje-ego.com
Address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53

울산지역 해양레저장비 업체인 라운하제(회장 진양곤)는 세계 2위권의 구명정 전문회사인 에이치엘비의 자회사로서 반잠수정 개발업체이다. 지난 2013년에 에이치엘비와 공동으로 레저용 반잠수정 '펭귄'(구 제품명 '이고')을 개발한 라운하제는 같은 해 세계 최초로 해양레저용 반잠수정에 대해 CE인증을 받았다.

'CE'(Conformity to European)는 지난 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대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수적인 인증서이다. 따라서 이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조건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유럽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마크이다. 세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양레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해양레저용 반잠수정이 유럽인증(CE)을 받음으로써 라운하제는 본격적인 수출 길을 열고 있다.

2014년에는 해양레저용 반잠수정 '펭귄'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레저시장에 본격 시판 중이며, 2015년 3월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라운하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시드니보트쇼에 참가해 주요제품인 반잠수정 펭귄(PENGUIN) 2.0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2014년 개발에 성공한 펭귄 2.0은 요트 형태로서 최대 12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반잠수정으로, 바닥을 25mm 아크릴 유리로 만들어 바닷속을 볼 수 있다. 또한 실내에 에어컨과 수중 조명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선상파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디텍



www.dtec.co.kr	
대표	이영일
설립	2006년
주요제품	레저용, 상업용, 방위, 구난용 중소형 보트 제조
Number	Tel. +82-51-831-6880 Fax. +82-51-831-6881 www.dtec.co.kr
Address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59번길

DTEC은 중소형 보트 제조업체로서 많은 선박설계 경험과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알루미늄 레저용, 상업용 중소형 보트를 건조하고 있다.

2006년 보트 및 요트 디자인 전문회사로 창업하여 2008년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센터에 입주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선박제조분야에 뛰어 들었다. 국내의 일반적인 소형 조선소와 달리 선박건조가 가능하며 디자인, 3차원 설계, 조선공학적 체계산과 같은 설계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DTEC의 사업영역은 중소형 보트 제품 생산 뿐 아니라, 중소형 선박 설계, 마린 엔지니어링은 물론 레저용 선박 도장 등의 서비스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다. 선박 도장의 경우, 전 세계 보트 빌더들에게 인정받는 세계적인 요트페인트 브랜드 AWLGRIP 제품의 동남권 공식 배급사이기도 하다. 이영일 대표를 포함하여 디자인 및 조선공학 분야의 석, 박사급 인재들로 구성된 젊은 기업으로 2013년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국내 최초 1인승 16ft 카타마란 딩기요트 'D-cat'을 선보여 올해의 혁신제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5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알루미늄 보트기술로 만든 경주용 보트 'JETSPRINT BOAT'를 선보였다. 'JETSPRINT BOAT'는 선체길이3.5~4M로 500마력 내외의 엔진을 탑재했다. 'JETSPRINT BOAT'는 고속 운항을 위해 선체 선형은 V TYPE으로 제작되었으며, 고속으로 회전할 때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에 STRAKE가 부착돼 있으며, 해외 FORMULA 대회에 참가한 경력도 있다.

DTEC은 제트스프린트 보트뿐만 아니라 낚시용 피싱보트와 산업용 보트까지 디자인 및 설계, 제작능력을 갖추고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최대 23미터 알루미늄 보트 제작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3차원 설계 및 CNC 커팅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정도의 보트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4월에 개최된 상하이보트쇼에 참가하기도 했다. CE(Conformity to European)와 GD(Good Design)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제품으로서의 세계적인 공신력을 키워가고 있는 해양레저분야 유망기업이다.



DK마린



www.dkmarine.kr	
대표	신현구
설립	1990년 7월
주요제품	보트, 보트용 트레일러, 견인장치, 보트 및 트레일러 부품 제조
Number	Tel. +82-32-584-5600~2 Fax. +82-32-584-5603 http://www.dkmarine.kr
Address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좌로 96번길 63 (십정동 226-2)

D.K MARINE은 레저용 모터보트와 트레일러 제조 및 판매회사다.

1990년에 대경모터보트로 창업한 이 회사는 각종 보트의 엔진 판매 및 수리 등 서비스 전문 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보트 트레일러 제조과정에서 쌓아온 기술축적과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15년 전부터 고무보트 및 콤비보트 제조에 뛰어들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D.K MARINE은 2001년부터 뉴질랜드 RAMCO MARINE사로부터 보트제조 공법을 연수하여 국내 최초로 레저용 알루미늄 합금보트를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레저용 보트 및 트레일러의 설계, 개발,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ISO9001(2000)을 인증받았고, 보트 트레일러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인 견인장치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에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여 2000년 등록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곧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견인장치의 분리가능 구조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D.K MARINE이 갖고 있다는 말이다.

D.K MARINE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다수 제품들을 국산화하였으며, 수입 대체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소방서는 물론 해양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의 국산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알루미늄 합금 보트를 개발하면서 한국해안의 지리적 특성과 한국인의 취향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과 인명구조선, 순시선 등 반영구적인 제품생산과 미래 해양 레저스 포츠문화 창조에 선두기업으로 앞장서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D.K MARINE은 올해 해양수산부의 해외보트쇼 참가지원 업체로 선정되어 5월에 개최된 호주의 생추어리코브 보트쇼에 참가하기도 했다.



코리아터빈(주)



www.koreaturbine.com	
대표	이찬우
설립	1995년
주요제품	선박 추진기, 자동제어장치, 솔라보트
Number	Tel. +82-70-4667-3126~30 Fax. +82-70-8650-3939 www.koreaturbine.com
Address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19번길 84-121

코리아터빈(주)는 1995년 '마린오토메이션서비스'라는 사명으로 창업한 선박 추진 장치 개발 및 생산업체로서 선박자동제어장치 전문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선박 추진 장치에 대한 다년간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설비의 설계 제조와 판매를 전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코리아터빈(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4개의 해외보트쇼 참가지원 업체 중 하나로 상해보트쇼에 참가하기도 했다.

코리아터빈(주)가 상해보트쇼에 선보인 제품은 친환경 태양광 보트인 6m급 'E-MARAN'이다.

'E-MARAN'은 친환경 보트 생산의 선구자인 코리아터빈(주)이 레저용 태양광보트를 보급형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컨테이너의 규격에 맞춰 제작해 전 세계로 수출을 겨냥한 제품이다.

친환경 보트에 관심을 갖게 된 데 대해 회사 관계자는 "심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해상을 통한 수송이 활발한 실정인데, 수송동력이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지구온난화는 물론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20여 년간 선박추진장치를 연구 개발해온 저희로서는 외화와 에너지 절감,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상교통 및 수송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사업의 배경을 밝혔다.

코리아터빈(주) 기술연구소는 고효율 저비용의 그린 에너지를 채택하는 솔라보트 설계 및 개발, 선박엔진 콘트롤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의 태양광보트를 개발하여 디자인특허를 등록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라인업하여 본격적인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레저생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레저용 보트 'E-MARAN'은 수출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중이다.



KIMA BRIEF

KIMA WEEK 2015 조직위원회 출범

2월 1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KIMA WEEK 2015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월 1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월 17~23일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수영강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 국제보트산업전, 광안리 달빛 수영 페스티벌, 전국어린이 요트페스티벌, 선상 낚시 페스티벌,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글로벌 해양관련 축제 관계자 및 해양레저산업과 업계 CEO들을 초청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Seatrade Cruise Asia 행사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협약 체결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 부산에서 열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크루즈 분야 박람회인 'Seaside Cruise Asia 2015'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해운대 BEXCO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부산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공동으로 'Seaside Cruise Asia'를 다음 달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박람회에는 국내·외 주요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각 국 크루즈 기항지 등 크루즈 산업 관계자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MERS 여파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2015 부산미래전략캠퍼스 개최

3월 12일 부산 BEXCO



기업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통합 세미나 2015 부산미래전략캠퍼스가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2일 해운대 BEXCO에서 열린 '2015 부산미래전략캠퍼스'는 서로 다른 산업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시장창출과 사업발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올해 처음 열린 '부산미래전략캠퍼스'는 기초강연 '부산의 미래는 지금부터' (강연자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식융합과 부산의 미래가치' (강연자 구정희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 회장)를 시작으로, 분야별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산업전망 및 미래전망, 미래창조 세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KIMA WEEK TOUR PASS 앱 회의

KIMA WEEK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앱 개발



KIMA WEEK TOUR PASS 앱 개발을 위한 2·3차 회의가 열렸다. KIMA WEEK TOUR PASS 앱은 KIMA WEEK 기간 동안 참가업체와 요트 탑승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 기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유용한 해양레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주는 것을 그 최종 목적으로 한다. 3월 25일 부산MBC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메인 화면 디자인, 비콘 사용 여부 등 앱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 및 디자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4월 17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앱의 iOS체제 연동 문제, 결제 기능 추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KIMA WEEK 2015 기획조정단 회의

5월 12일까지 총 5차에 걸쳐서 열려



KIMA WEEK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조정단 회의가 5차까지 진행되었다. 3월 31일에 진행된 제2차 기획조정단 회의에서는 지난 KIMA WEEK에 대한 성찰과 올해 KIMA WEEK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4월 17일의 제3차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기념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4월 28일 있었던 제4차 회의는 KIMA 앱 결제 가능 문제와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 내년 개최시기 등을 조율했으며, 5월 12일 진행되었던 제5차 기획조정단 회의에서는 행사 전반의 세부사항과 SNS를 이용한 홍보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부산해양레저장비 지원사업

바다에서 네 꿈을 펼쳐라



KIMA WEEK가 부산영상위원회와 연계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시 필요한 해양레저 장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15년 3월에서 12월까지 9개월 간 계속되며 해양레저장비를 이용하는 장면이 극 내용상 포함되어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 촬영 개시일로부터 2주 전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bfc.or.kr)에 '지원사업양식'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부산해양레저장비 지원사업 담당자(051-7200-329)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세계일주 성공기념행사

'서해안 요트문화, 실�크로드를 열다'



대한민국 최초로 무기항 무원조 요트세계일주를 성공한 김승진 선장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5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열렸다. 주최 측인 요트세계일주 성공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최초, 세계 6번째로 무기항 요트세계일주 성공을 기념하는 본 행사로 국가 위상 제고 및 해양레저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각계각층의 VIP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진 선장을 환호와 함께 맞았으며, 축하공연, 오픈토크 콘서트, 해변마라톤 등 풍성한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KIMA WEEK 2015 전체 기획조정단 회의

6월 16일 부산MBC 소회의실



KIMA WEEK 2015 개최를 앞두고 기획조정단의 1차 전체 회의가 지난 6월 16일 부산MBC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등 다른 행사들과의 밀접한 연계, 연사 섭외 문제 등의 세부 사항과 올해 KIMA WEEK의 전반적인 행사 진행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낚시애호가들을 겨냥한 광고, 브로슈어 등 홍보 문제도 논의되었다. 참석자 모두가 몇 개월 남지 않은 KIMA WEEK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엽니다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_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KOREA MARINE LEISURE NETWORK_ 69, Gampo-ro 8beon-gil, Suyeong-gu, Busan, Korea
 T. +82 51 760 1130 F. +82 51 760 1134 E. komalnet@naver.com

KIMA WEEK 2015 조직위원회



www.boatshowbusan.com

KIMA 2015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부산국제보트쇼

2015. 9. 17 Thu ▶ 9. 20 Sun

BEXCO 제1전시장 | 수영만 요트경기장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 마리나가 열겠습니다.

일자리
12천개



경제효과
1조원

레저선박
3만척,
요트면허
25만명

1. 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화 마리나

- 복합 문화공간 시설 지원
- 지역별 마리나 특화전략 마련

투자확대

- 마리나수요 점·사용료 감면
- 민간투자 장벽 해소

네트워크 구축

- 요트 계류부이 설치(10개소)
- 어촌 마리나역 육성(16개소)
- 거점 마리나항 개발(6개소)

2. 마리나요트 관광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험기회 확대

- 전국 60개소 체험교실 운영
- 체험교실 자유학기제 연계
- 해양스포츠대회 지원 확대

보트쇼 등 관광컨텐츠

- 대한민국 대표 보트쇼 육성
- 마리나 관광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업 활성화

-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
-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3. 국산 레저선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

- 해외보트쇼 참가비 지원
- 유명보트쇼 한국관 개설

고부가가치 R&D

- 슈퍼요트, 융복합소재 개발
- 유망 신기술 R&D발굴

시장 제도개선

- 레저선박 지방세 과세 합리화
- 노후 레저선박 안전검사 강화

